

일본 경제 동향 (2014. 9월)

경기회복세 주춤, 엔저 가속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회복세 주춤	2
2. 8월 수출입 모두 감소	7
3. 고주가·고금리·엔저	9
4. 해외직접투자 증가세로 반전	11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3
1. 최근 엔저 가속 문제	13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8월 대일무역적자 소폭 확대	16
2. 한일간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산업협력	18
3. 8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 크게 증가	20
V. 참고 자료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1
2.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23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2	2013	2013	2014		2014			
			4/4	1/4	2/4	6월	7월	8월	
GDP증가율(연율,%)	1.5	1.5	-0.5	6.0	△7.1(p)	-			
경기동향지수(2010=100)	-	-	111.5	-	-	109.7	109.9	-	
광공업생산증가율(전기비,%)	0.6	△0.8	1.9	2.9	△3.8	△3.4	0.4	-	
소비자물가	△0.1	0.4	0.3	0.2	2.3	0.0	0.1	-	
전기비									
상승율(%)	△0.1	0.4	1.1	1.3	3.3	3.3	3.3	-	
실업율(%)	4.3	4.0	3.9	3.6	3.6	3.7	3.8	-	
수출(조엔)	63.7	69.8	18.1	17.5	17.6	5.9	6.2	5.8	
수입(조엔)	70.7	81.3	21.8	22.4	20.2	6.8	7.2	6.8	
무역수지(조엔)	△8.4	△11.5	△3.7	△5.0	△2.6	△0.8	△1.0	△1.0	
경상수지(조엔)	4.8	3.3	△1.4	△0.9	0.3	△0.4	△0.4	-	
해외직접투자(조엔)	9.8	13.2	3.1	2.6	2.0	0.7	0.8	-	
환율	달러	80.1	97.7	100.5	102.8	102.1	102.1	101.7	103.0
	원화(100엔)	1,413	1,123	1035.7	1,039	1,008.2	999.0	1,003	996
금리(10년물,%)	0.78	0.72	0.64	0.63	0.60	0.59	0.54	0.51	
주가(닛케이)	9,612	13,651	15,388	14,958	14,655	15,131	15,379	15,359	

주: (p)는 2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회복 주춤

- '14.7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9.9로 0.2p 상승

□ (소비자물가)

- '14.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

□ (무역수지) 8월 수출입 모두 감소한 가운데 전월 수준 유지

- '14.8월 무역적자는 1조 엔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

□ (환율) '14.8월 엔화환율은 전월보다 엔저

- '14.8월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평균치는 103.0엔으로 전월대비 1.3% 엔저

* '14.8월 엔화의 대원화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96원으로 0.7% 엔저·원고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회복세 주춤

□ (총 합)

- 경기 기조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판단이 4개월 연속 담보상태를 유지한데 이어,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도 5개월만에 경기판단을 하향수정
 - ‘14.7월 일치지수로 본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9.9로 전월보다 0.2p 상승, 2개월만에 개선되기는 했으나, 광공업생산의 증가세가 약하고 소매업 판매가 감소



자료 : 내각부

- 더욱이 최근 일본의 경기회복이 주춤하고 있음
 - 개인소비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은 감소하고 있지만, 태풍과 호우 등 기후불순과 실질임금의 감소 등이 소비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설비투자가 경기의 지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비세 인상의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에서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필요한 상황

□ (전 망)

- 2분기 GDP성장율이 -6.8%에서 -7.1%로 하향 수정됨에 따라 일부 일본의 민간연구기관들은 2014년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수정했으나, 소비세 인상 후 소비감소는 일시적이며 경기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임
 - 3분기 이후에는 소비의 회복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수출은 2014년도 후반 이후에도 정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일본정부는 2014년 3분기 GDP성장율에 의해 2015년 소비세의 10% 재인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계속 증가, 물가상승분 이상의 임금인상 기대가 형성될 것인지 여부가 초점이 될 것임

□ (GDP) 2014. 2분기 실질 성장률 -7.1%로 하향수정

- 일본 내각부는 2014년 2분기 실질 GDP성장율을 전기비 연율 -6.8%에서 -7.1%로 하향수정
 - 설비투자는 전기비 5.1% 감소로 1차 속보치보다 2.6p 하락, 8월 1차 속보치 발표 후 운수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임
 - 개인소비는 5.1% 감소로 0.1p 하락, 의류와 자동차 판매의 부진한 영향이 컸음
 - 주택투자도 1차 속보치보다 0.1p 하락한 10.4% 감소,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폭이 보다 컸음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2	2013	2013		2014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0.4	-0.1	1.5	-1.8	-	-
(전기비연율)	1.5	1.5	(1.8)	(-0.5)	(6.0)	(-7.1)	-	-
(전년동기비)			(2.3)	(2.5)	(3.0)	(-0.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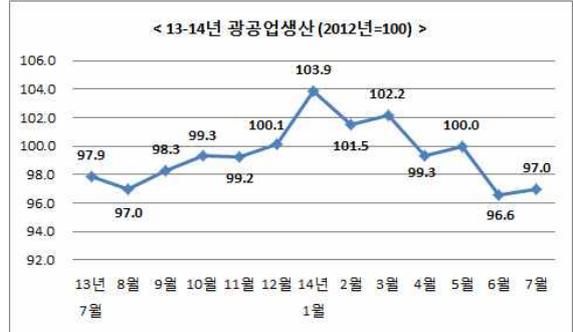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 일본의 41개 민간싱크탱크 평균치에 따르면, 2014년 3분기에는 4%, 그 후도 2015년 까지 2% 전후의 성장률을 유지, 소비세 인상 후 소비감소는 일시적이며 경기는 완만 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임
 - 3분기 이후에는 소비의 회복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수출은 수익중시의 기업경영에 따른 수출가격 동결, 생산의 해외이전 영향으로 2014년도 후반 이후에도 정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경기회복을 지탱해주기 위한 경제대책을 검토
 -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15년도 당초 예산 2단계에 걸쳐 재정지출을 고려
 - 경제·물가 상황 여하에 따라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음

□ (광공업생산) 7월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0.4%의 소폭 증가

○ '14.7월 광공업생산은 2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으로 전월비 0.4%의 소폭 증가에 그침

- 전체 15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증가, 6개 업종이 감소한 가운데, 범용·생산용·업무용 기계가 생산증가를 주도한 반면, 자동차 생산은 감소



자료: 경제산업성

○ 당분간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이 계속될 것이나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제조공업생산 예측조사에 의하면, 8월에는 1.3%, 9월은 3.5% 증가 예상

□ (소 비) 기후 불순 영향으로 감소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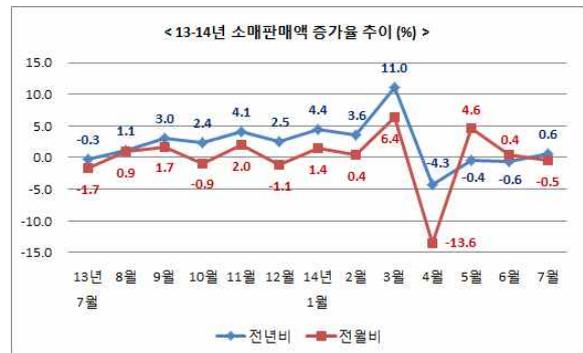
○ 7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비 0.5% 감소

- 소비세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은 완화되고 있으나, 태풍과 호우 등 기후 불순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
- 다만 백화점 판매액은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가계조사 등)를 감안한 소비종합지수도 7월에 전월비 0.6% 감소

- 전반적으로 소비자마인드의 회복세가 더더지고 있음

○ 앞으로 고용소득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나, 가수요의 반작용으로부터의 회복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반작용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자료: 경제산업성

□ (설비투자) 기계수주액 2개월 연속 증가, 경기의 지지목 역할

○ '14.7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3.5% 증가

-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함으로써 설비투자가 경기의 지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제조업은 20.3%의 높은 증가율 보인 가운데, 화학공업 관련 기계와 항공기 및 공작기계 등의 수주가 증가
- 비제조업은 4.3%의 감소를 보인 가운데, 건설업과 리스업 관련 건설기계 수주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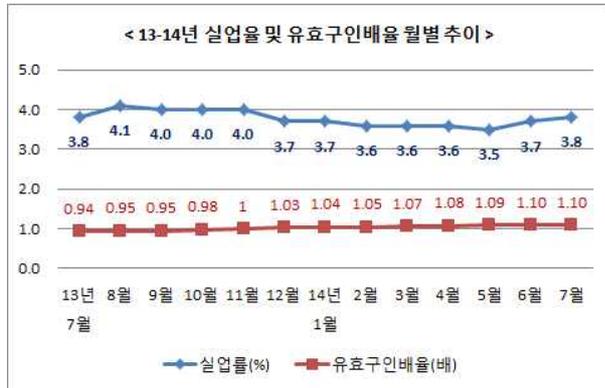


자료: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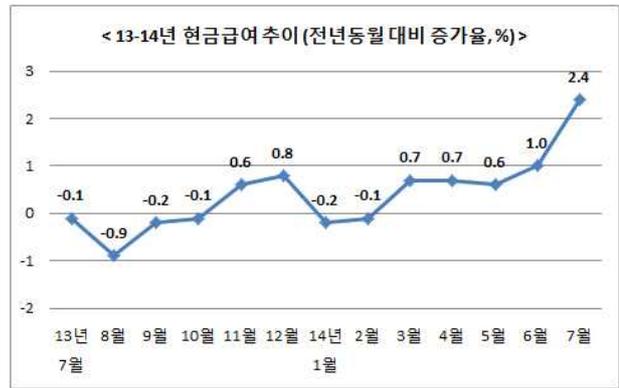
- 일본은행 단칸(短観 : 2014년 6월), 법인기업통계경기예측조사(2014년 7~9월)등에 의하면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14년도에 증가
- 설비과잉감이 남아있기는 하나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

□ (고 용) 고용상황은 여전히 개선

- 2014년 7월 완전실업율은 3.8%로 6월보다 0.1p 상승
 - 여성 구직자들의 구직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
 - 취업자 수는 6,35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
- 7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10배로 6월과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여 고용이 개선되고 있음
 - 신규 구직자수는 4.5% 증가, 11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늘어났는데, 의료복지와 교육학습지원 관련 구인수가 11.4%의 높은 증가를 보임
- 임금은 정기급여의 건조세와 함께 현금급여총액이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전월대비로는 0.7% 증가
- 그러나 임금증가율이 물가상승율에 못 미치고 있어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양호한 고용환경이 임금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자료: 후생노동성



자료: 후생노동성

□ (소비자물가) 7월 전월비 0.1% 상승

○ ‘14.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은 전월 대비 0.1%로 전월보다 상승

-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 상승, 14개월 연속 상승

- 그러나 일본은행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효과를 2.0%로 보고 있어,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

○ 품목별로는 에너지가 전체로 전년 동월 대비 8.8%, 가전제품 중 에어컨이 11.9%, TV가 11.8%로 상승폭이 큼

○ 최근 소비자 심리의 회복으로 가격인상(소비세 인상분의 가격전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당 109엔대에 육박하는 엔저 가속에 따라 앞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자료: 총무성

2. 8월 수출입 모두 감소

□ (총 합) ‘14.8월 수출입 모두 감소한 가운데, 무역적자는 1조 엔으로 7월과 같은 수준

- ‘14.8월 무역수지는 2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전월과 같은 1조 엔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3,216억 엔에서 2,339억 엔으로 축소된 한편,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4,837억 엔에서 3,846억 엔으로 축소

< 2014년 8월 일본의 수출입 (단위: 조엔, %) >

	2014.7월			2014.8월			2014.1-8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6.2	3.9	5.1	5.8	-1.3	-6.5	46,791	24.1
수 입	7.2	2.3	5.9	6.8	-1.5	-5.6	56,398	7.4
무역수지	-1.0	-0.07	0.1	-1.0	0.02	-0.06	-9,607	2,791

주 : 수출, 수입의 증감은 %, 무역수지의 증감은 조엔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출) 금액, 물량 모두 감소

- ‘14.8월 수출은 7월보다 전월비 6.5% 감소한 5.8조 엔
 - 수출 물량도 전월보다 2.9% 감소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부품, 과학광학기기 순이며, 전월과 비교하여 플라스틱 대신에 과학광학기기가 포함
 - 5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과학광학기기 등 3개 품목이 전월보다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각각 22.4%, 13.7%의 큰 폭으로 감소
- 주요 수출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모두 감소한 가운데, 對 미국 수출이 9.4%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큼
- 엔저하에서도 일본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원인은 과거 엔고기간 중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현지생산에 의한 수출대체, 환율변동에 의한 수출가격 전가(달러화표시 수출가격 인하)의 어려움 등임

< 2014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억엔, %) >

순위	품목	2014.7월			2014.8월			2014.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9,950	8.1	8.1	7,718	-2.9	-22.4	69,145	4.1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143	-0.7	8.3	3,263	0.9	3.8	23,326	-0.4
3	철강	3,112	-4.2	-6.5	3,190	-1.7	2.5	25,711	1.3
4	자동차부품	3,065	3.4	8.7	2,644	-7.2	-13.7	22,454	-1.0
5	과학광학기기	2,034	9.9	3.1	2,043	4.0	0.4	15,463	7.9

자료: 일본 재무성

< 2014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단위: 억엔, %) >

순위	국가	2014.7월			2014.8월			2014.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1,328	2.6	3.4	11,160	-0.2	-1.5	85,818	6.5
2	미국	11,283	2.1	1.9	10,226	-4.4	-9.4	86,151	2.6
3	ASEAN	9,296	3.7	3.1	8,900	-0.6	-4.3	71,101	-1.1
4	EU	6,471	10.2	7.7	5,964	5.6	-7.8	49,449	11.5
5	한국	4,381	-7.7	3.8	4,307	-6.1	-1.7	35,265	-4.7
6	대만	3,674	11.7	4.9	3,394	3.3	-7.6	27,662	2.4

자료: 일본 재무성

□ (수입) 기후불순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 감소

- '14.8월의 수입은 7월보다 5.6% 감소한 6.8조 엔
 - 수입 물량도 전월 대비 4.6% 감소
- 수입이 감소된 데는 태풍과 호우 등 기후 불순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
- 수입액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의류 및 동 부속품, 석유제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이며, 의류 및 동 부속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 액화천연가스의 감소폭이 전월비 11%로 가장 큼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감소한 가운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전월비 13.7%로 가장 큼

< 2014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억엔, %) >

순위	품목	2014.7월			2014.8월			2014.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11,701	6.9	10.1	11,401	-5.2	-2.6	95,814	4.0
2	액화천연가스	6,673	7.4	14.3	5,942	3.3	-11.0	51,682	10.0
3	의류·동부속품	2,593	-4.6	25.4	3,062	-8.0	18.1	20,153	-0.5
4	석유제품	2,377	23.3	7.6	2,330	7.8	-2.0	18,531	5.8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210	-0.8	-5.0	2,255	3.7	2.0	18,653	21.3

자료: 일본 재무성

< 2014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단위: 억엔, %) >

순위	국가	2014.7월			2014.8월			2014.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4,544	-2.5	-1.0	13,499	-5.3	-7.2	120,617	9.3
2	ASEAN	10,322	-0.1	9.1	9,296	-0.9	-10.0	80,716	7.0
3	미국	6,446	6.2	2.4	6,371	10.7	-1.2	49,614	11.2
4	EU	6,966	0.9	6.7	6,308	-1.5	-9.3	53,873	8.9
5	호주	4,651	0.4	15.1	4,172	-4.6	-10.2	33,893	2.6
8	한국	3,037	-0.1	8.9	2,621	-5.8	-13.7	23,226	2.6

자료: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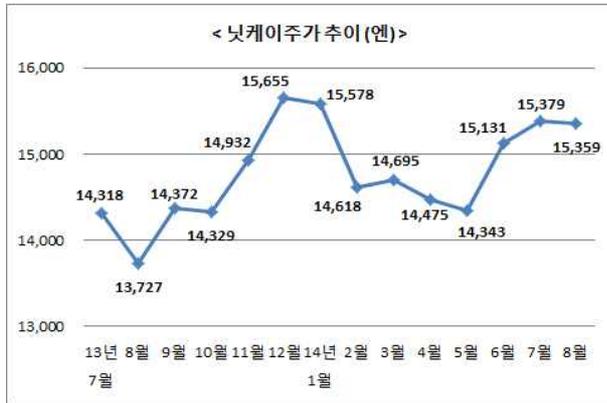
3. 고주가 · 고금리 · 엔저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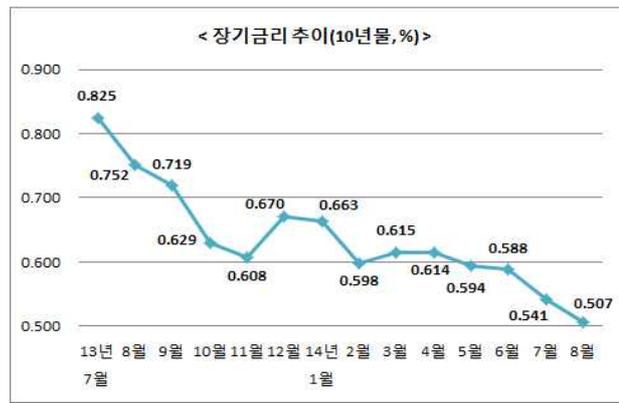
- '14.8월 평균 주가는 전월보다 0.1% 하락한 15,359엔
- 그러나 9월 들어서는 주가상승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9월 19일 기준으로 16,300엔대까지 상승

□ (금 리)

- '14.8월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6.3% 하락한 0.507%
- 9월 들어서는 주가상승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9월 19일 기준으로 0.560%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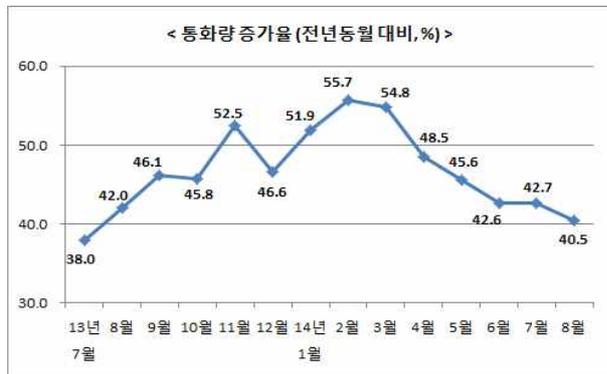
자료: 일본경제신문



자료: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4.8월 머니리베이스(평잔)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40.5%



자료: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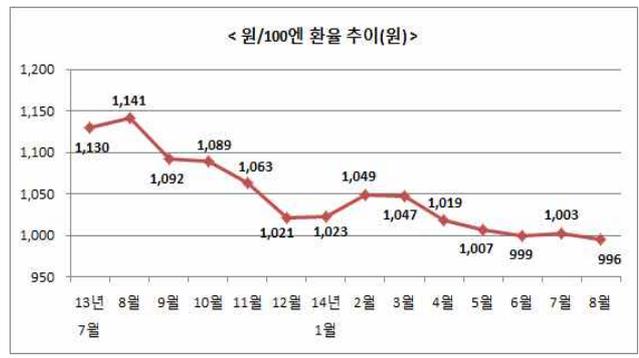
자료: 재무성

□ (환율)

- '14.8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103.0엔으로 7월보다 1.3% 엔저
 - 9월 들어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조기 정책금리 인상 논의 등으로 9월 19일 기준 108엔대 후반까지 엔저 가속
- 2014년부터 102엔대를 유지하던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기회복 및 조기 금리인상 논의, 일본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한 일본 경기의 일시적인 침체 및 무역적자 계속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 '14.8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96원으로 7월의 1,003원에 비해 0.7% 엔저



자료: 일본은행



자료: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증가세로 반전

□ (동향)

- '14.7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7,828억 엔으로 전월대비 15.9%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기준, 억엔, %) >

	2013	2014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 액	131,946	6,339	7,376	6,096	7,356	6,757	7,828	
증가율	전기비	34.9	-49.6	16.4	-17.4	20.7	-8.1	15.9
	전년동기비	34.9	56.7	-21.0	-59.4	-18.4	-21.4	-79.0

자료: 일본 재무성

- 아시아 지역과 대양주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226.1%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유럽과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각각 66.5% 및 50.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1.1%의 감소를 보인 아시아 지역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45.1%의 큰 감소폭을 보인 반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22.9%의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2014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엔, %) >

	2013년	2014.6월			2014.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31,946	6,757	-8.1	-21.4	7,828	15.9	-79.0
아시아	39,294	2,834	86.4	-17.0	2,803	-1.1	20.7
중 국	8,855	834	75.2	20.5	459	-45.0	-25.1
한 국	3,209	201	1,240.0	-41.4	448	122.9	35.8
북 미	45,698	1,125	-80.0	-14.1	1,695	50.7	-93.0
미 국	42,933	1,053	-45.4	-18.0	1,550	47.2	-93.6
중남미	9,902	69	-80.6	-81.6	225	226.1	-93.7
유 럽	31,567	1,596	-49.1	-30.7	2,658	66.5	-59.4
대양주	5,895	682	-	-26.6	171	-75.0	-78.7

자료: 일본 재무성

□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는 118조 엔으로 최초로 100조 엔을 상회
 -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13년 신규투자가 과거 최고를 기록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금융 등 비제조업(LIXIL그룹, 소프트뱅크 등의 대형투자)이 투자를 견인
-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2가지로 집약
 - 첫째, M&A형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13.4월~'14.3월 기간 중 521건으로 최고치 기록
 -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는 자원확보형 투자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해외 자원확보형 투자 진출이 확대
 - 둘째,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 엔저에도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생산단가 저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 현지시장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 등 때문임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 최근 엔저 가속 문제

-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이 2014년 9월 5일 달러당 105엔대로 하락, 9월 18일에는 달러당 108엔 87전으로 약 6년만에 엔저 기록

□ 배경

① 미일간 경기상황 차이와 금리차 확대 예상

- 미국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르면 2014년 10월중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정책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반면, 일본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계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가 금융완화 관측도 있음
 - 특히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 금리의 상승여지가 적다고 판단하여, 미일간 금리차 확대를 예상한 엔매도 압력이 강함
- 엔저에 발동을 건 것은 미국 경기의 회복에 의한 강한 달러를 시장이 의식했기 때문임
 -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파급, 달러매입이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초저금리의 엔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금리가 높은 달러에 투자하는 쪽이 득이 되는 것은 당연, 외환시장에서 엔을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하는 움직임이 우세
- 엔매도세가 강한 배경에는 일본 경기회복세의 둔화로, 경기를 부양시켜 소비세 인상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추가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엔매도를 부추김

② 일본의 무역적자

- 2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무역적자로 일본의 수입기업에 의한 엔매도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도 있음

□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엔저는 일본경제에 수출증가 등의 플러스 영향을 가져오는 반면,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리스크도 있음

① 플러스 효과

○ GDP

- 닛세이 연구소에 의하면, 10% 엔저시 일본의 GDP가 0.2% 증가
- 그러나 자동차 등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엔저가 일본경제를 부양시키는 힘은 이 전보다 약해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가 산출한 수출물량지수는 7월에도 90.4로 2013년 1월(90.7)에 비하여 횡보상태에 있음

○ 기업이익

-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의 엔화표시 수익도 확대
- 특히, 대기업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대기업에 영업이익 증대효과가 큼
- 달러당 105엔 수준이 계속되면 도요타자동차 등 주요 20개 수출기업들의 2014년도 하반기 영업이익이 2,500억엔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

○ 주가

- 엔저는 아베노믹스로 상승한 주가의 상승요인이기도 한데,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엔저로 연말에는 주가가 17,000엔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디플레이션 탈출

- 엔저는 수입물가 상승(8월, 4.5%), 소비자물가상승(7월, 소비세인상분 제외 1.3%)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을 촉진

② 마이너스 효과

○ 중소기업

- 미즈호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10엔 엔저로 상장기업은 약 2조엔 규모의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중소하청 등을 포함한 비상장기업은 1조 3,000억엔 이익 감소

○ 가계

- 소비세인상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감소된 데다가 엔저에 의한 연료가격 상승이 전기 가스요금 상승으로 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소비가 감소하게 됨

□ 전망

- 시장에서는 엔화환율은 2014년 말 시점에서 105~109엔, 일본의 주가는 17,200~17,800 엔대에서 추이할 것으로 전망
 - 일각에서는(미쓰비시도쿄은행) 금년 중으로 110엔, 내년에는 115엔까지 엔저가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시사점

- 엔화 환율의 적정수준을 둘러싼 논의 활발해 지고 있음
 - 넷케이 베리타스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경제와 기업 입장에서 바람직한 환율 수준은 110~115엔
 - 현 상태라면 2007년의 엔저수준 120엔대까지도 엔저가 가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본 경제계에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
 - 그 배경에는 현재 일본경제 상황이 2007년과는 크게 달라, 엔저가 반드시 엔저이익을 가져오고 이것이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임
 -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진전되고, 일본경제에서 점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후퇴
 - 제조업의 대GDP비율이 18%로 1990년 이후 약 4%p 저하, 대신 서비스업의 대GDP 비율이 20%에 달하는 등 엔저 이익이 직접 나타나기 어려운 산업이 확대
 - 한편, 엔저가 에너지 등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과거에 엔고가 일본경제의 저력을 시험했다면, 앞으로는 엔저가 일본경제의 저력을 시험하는 구조로 일본경제가 바뀌고 있음
- 환율하락 효과의 유의점과 극대화
 - 급격한 엔저는 수입가격 상승 →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소비세인상으로 주춤한 경기회복세에 악영향
 -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엔저가 기업수익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8월 대일무역적자 소폭 확대

□ (총 합)

- ‘14.8월 대일무역적자는 1,685백만 달러로, 7월에 비해 54백만 달러 확대
- 대일 수출은 2,538백만 달러, 대일 수입은 4,223백만 달러

< 2014년 8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2014.7월			2014.8월			2014.1-8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수출	2,999	5.9	17.2	2,538	-8.1	-15.4	21,727	-4.3
대일수입	4,630	-9.5	6.0	4,223	-13.0	-8.8	35,640	-12.0
무역수지	-1,631	-648	-175	-1,685	-408	54	-13,913	-3,863

주)수출, 수입의 증감은 %, 무역수지의 증감은 백만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4.8월의 대일 수출은 7월보다 15.4% 감소
-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은 4.1% 감소, 일본의 수입도 5.6% 감소하기는 했으나 대일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은 엔저·원고로 인한 대일수출경쟁력의 약화를 시사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 8월	-8.1	-15.4	-0.2	-4.1	-1.5	-5.6
2014.1-8월	-4.3	-	2.5	-	7.4	-

- ‘14.8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금속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대일수출이 감소
- 산업용전자제품(-37%), 석유화학제품(-29.2%), 기계요소공구·금형(-25.6%), 수송기계(-22.7%), 정밀화학제품(-22.4%)의 대일수출이 20% 이상의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2014년 8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 (단위: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4.7월			2014.8월			2014.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3,006	5.9	17.4	2,538	-8.1	-15.6	21,727	-4.3
1	광물성연료	669	37.5	57.8	588	-20.6	-12.1	4,497	-18.8
2	철강제품	347	7.3	1.5	314	10.9	-9.5	2,770	19.6
3	전자부품	194	-26.2	-4.4	181	-22.8	-6.7	1,616	-13.3
4	산업용전자제품	260	-7.3	55.7	164	-30.7	-37.0	1,814	-13.8
5	석유화학제품	192	15.5	16.3	136	-6.2	-29.2	1,116	-13.6
6	정밀화학제품	143	8.5	11.7	111	-1.5	-22.4	1,007	3.6
7	금속광물	88	-28.1	-1.1	97	8.2	10.3	716	-16.0
8	수송기계	119	-10.4	13.3	92	7.7	-22.7	853	11.3
9	농산물	98	5.3	1.0	88	3.3	-10.2	734	6.5
10	기계요소공구·금형	117	35.3	15.8	87	13.0	-25.6	764	18.5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4.8월의 대일 수입은 7월보다 8.8% 감소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 8월	-13.0	-8.8	3.1	-6.6
2014. 1-8월	-12.0	-	3.1	-

○ ‘14.8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전자부품, 기초산업 기계, 정밀기계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이 7월보다 대일수입이 감소

- 감소품목 중 산업기계의 감소폭이 26.4%로 가장 크고 이어 정밀화학제품(-14.4%), 철강제품(-12%), 석유화학제품(-10.8%), 산업용전자제품(-10%)등이 10% 이상의 감소폭을 보임

< 2014년 8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단위: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4.7월			2014.8월			2014.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 월비	전월비		
	총계	4,629	-9.5	6.6	4,223	-13.0	-8.8	35,640	-12.0
1	철강제품	759	-1.4	12.9	668	-7.0	-12.0	5,660	-9.9
2	전자부품	514	-11.9	5.5	542	-5.4	5.4	4,001	-14.0
3	석유화학제품	574	3.3	27.3	512	-4.7	-10.8	3,979	-14.0
4	정밀화학제품	381	-0.1	7.0	326	-5.4	-14.4	2,893	-3.7
5	기초산업기계	274	-23.3	-3.2	280	-35.0	2.2	2,331	-23.7
6	플라스틱제품	254	-7.9	8.5	229	-19.6	-9.8	1,930	-13.7
7	수송기계	217	13.7	7.4	202	23.4	-7.0	1,651	5.2
8	산업용전자제품	219	-15.6	-22.4	197	-5.5	-10.0	1,931	6.4
9	산업기계	250	-7.7	19.6	184	-2.3	-26.4	1,607	-3.0
10	정밀기계	145	-54.9	-25.7	158	-42.7	9.0	1,628	-18.2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일간 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산업협력

□ (동향) : '14.2분기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로 반전

○ '14.2분기 일본의 대한투자는 403백만 달러로 전기 대비 46% 감소

-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4.1%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
- 건수로도 19.2% 감소

○ 한편, 2014년 상반기 중 일본의 대한투자는 1,149백만달러로 전기 대비 14% 감소

- 이 역시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57.8%의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
- 건수로도 14.8% 감소

○ 이같이 상반기, 2분기 모두 전체외국인 투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그만큼 최근 대일투자환경의 악화 또는 악화조짐을 반영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달러, %) >

	2013년		2014.1분기		2014.2분기		2014.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99 (-11.6)	746 (2.3)	80 (-19.2)	403 (-46.0)	179 (-14.8)	1,149 (-14.0)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571 (-15.3)	5,062 (33.1)	583 (2.1)	5,272 (4.1)	1,154 (-9.9)	10,334 (57.8)

주: ()내는 전기 대비 증가율, 자료: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최근 한·일 기업간 산업협력 사례)

- 일본 스미토모세이카(住友精化)가 여수산단 중흥지구에 모두 1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 2016년쯤 본격 가동 예정(2014.6.16)
 - 스미토모세이카는 조만간 한국 내 투자를 위해 법인을 신설하고, 연간 6만t 생산 규모의 고흡수성수지 제조시설을 착공할 예정
- 일본 베름사도 2014년 9월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의 3,300여㎡ 부지에 40억여원을 투입, 공장 착공예정(2014.7.16.)
- LG화학이 닛산자동차에 전기자동차용 차세대전지 공급 검토(2014.9.16)
 -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에 납품함으로써 생산규모 확대, 코스트경쟁력 강화 외에도 차대형전지의 규격경쟁 경쟁우위 확보에도 유리

□ (시사점)

- 한일간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일본기업의 對 한국 투자가 중요한데, 당분간 엔저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다가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이 한일경제 교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됨

3. 8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 크게 증가

□ (일본인 방한) ‘14.8월 엔저에도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수 크게 증가

- ‘14.8월 일본인 입국자수는 208,147명으로 7월보다 20.8% 증가
 - 8월은 여름휴가, 방학 등으로 매년 방한 일본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 8월 방한 일본인 증가율(7월대비) : (‘12) 15.8%, (‘13) 29.9%, (‘14) 20.8%
 -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의 입국자가 전월대비 20,191명 증가, 21~30세는 9,479명 증가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여행을 온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임
 - * 일본 대학의 여름 방학은 8~9월로 한국보다 한 달 늦음
 - 또한 41~50세도 증가폭이 큰 것은 것으로 가족 해외여행으로 가까운 한국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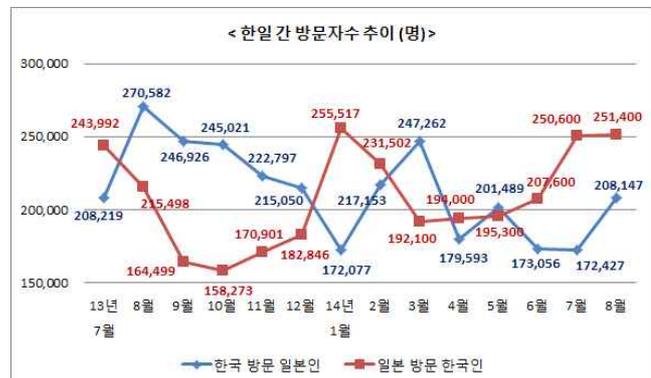
< 연령별 한국 입국 일본인(명) >

	0-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이상
2014.7월	13,119	31,025	32,609	38,615	30,663	22,622
2014.8월	33,310	40,504	34,553	43,334	32,880	20,704
증감	+20,191	+9,479	+1,944	+4,719	+2,217	-1,918

자료 : 한국관광공사

□ (한국인 방일) ‘14.8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는 소폭 증가

- ‘14.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51,400명으로 7월보다 0.3% 증가에 그침
 - 더욱이 금년 1-8월 기간중 일본 방문 총 외국인 수는 크게 늘었는데도 (25.8%), 한국인 방문객수가 줄고 있는(-0.1%)데, 이는 여전히 일본 방사능 이슈와 한일관계의 악화 등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시사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4.8월~9월)

□ 국내기관

- 『국제곡물유통시장 선진국 일본의 전략과 시사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9월18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2866>
- 『일본 소비시장의 특성과 신 마케팅전략의 필요성』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9월18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2866&no=42865>
- 『한국유통의 변화와 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9월18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2865&no=42864>
- 『기사로 보는 한일 경제의 진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9월18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2864&no=42863>
- 『한일 외교관계 개선 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9월18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2863&no=42862>
- 『일본, 창업빈국에서 창업대국을 향해 재걸음 박차』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9월18일
<http://iit.kita.net/>
- 『일본 전자산업 평가 및 기업의 대응』 한국은행, 2014년 9월12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09478&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4년 9월5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09342&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4&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신성장전략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 KOTRA, 2014년 8월29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2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ARTICLE_ID=5019045
-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 전략』 KOTRA, 2014년 8월27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2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ARTICLE_ID=5018958

□ 일본기관

-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익력』 일본은행, 2014년 9월19일
http://www.boj.or.jp/research/wps_rev/wps_2014/wp14j08.htm/
- 『엔저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부진의 배경과 전망』 EY종합연구소, 2014년 9월18일
<http://eyi.eyjapan.jp/knowledge/economic-research/2014-09-17.html>
- 『일본무역회월보 9월호 특집 : 일본의 성장전략과 상사』 일본무역회, 2014년 9월17일
http://www.jftc.jp/ebook/geppo728/_SWF_Window.html?mode=1062
- 『메가 FTA의 조류와 일본의 신통상전략』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4년 9월13일
<http://www.iti.or.jp/kikan97/97umada.pdf>
- 『메가 FTA 활용 지원체제 급선무』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4년 9월5일
<http://www.iti.or.jp/column023.htm>
- 『국제분업하에서 일본의 기업행동과 산업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경제산업성, 2014년 8월30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4fy/E004422.pdf

2.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9월)

일자	주요 행사 내용
1~5	• 제5차 한중일 FTA 교섭회의(베이징)
1~10	• TPP 수석교섭관 회의(하노이)
1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소기업 기본정책 소위원회(경산성)
2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 소위원회(경산성)
3	• 내각 개편, 자민당 간부 인사 • 원자력 규제위원회 • 산업구조심의회 특허제도 소위원회(견산성)
5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요금 심사 전문 소위원회(경산성)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가스 시스템 개혁 소위원회(경산성) • 7월 경기동향지수 속보치(내각부)
8	• 4~6월(2분기) GDP 개정치(내각부) • 7월의 국제수지(재무성)
9~10	• TPP 협상 미일 실무급 협의(도쿄)
9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 핵연료 시설의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 8월 소비동향조사(내각부)
10	• 7월 기계수주(내각부)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신에너지 소위원회(경산성)
10~12	• 세계경제포럼 하계 다보스회의(중국)
12~14	•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쿄)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경산성)
12	• 7월 광공업생산지수 확보치(경산성)
16	• 경제재정자문회의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원자력 소위원회(경산성)
16~17	• 한중일 장어의 국제적 자원보호·관리에 관한 협의(도쿄)
17	• 원자력규제위원회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요금 심사 전문 소위원회(경산성) • 8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수(일본정부관광국)
18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제도설계 워킹그룹(견산성) • 8월 무역통계(재무성) • 제19차 산업경쟁력회의
22~27	• 日中경제협회 대표단 중국 방문
23~24	• 아마리 경제재정·재생대신이 TPP 미국 프로먼 USTR 대표와 협의
24	• 원자력규제위원회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가스 시스템 개혁 소위원회(경산성)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자주적 안전성 향상·기술·인재 워킹그룹(경산성) • 지속 성장을 위한 기업과 투자의 대화 촉진 연구회(경산성)
25	•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원자력규제위원회)
26	• 산업구조심의회 할부판매 소위원회(경산성) • 8월 소비자물가지수(총무성)